

6 기획-서울캠 총학 주요 공약 점검

# 임기 종료까지 4개월, “교양 절대평가·스마트캠퍼스·총장선출에 집중할 것”

정혜원 기자 jhw00070@khu.ac.kr  
박희원 기자 noxtfjxy@khu.ac.kr

# 지난 1월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 선거에서 이재백(관광학 2020) 총학생회장과 채희선(행정학 2020) 부총학생회장이 당선됐다. 8개월이 지난 지금, 그들이 내세운 주요 공약들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살펴봤다.

### 휴머니티스 교양 절대평가

Q. 지난 5월 진행된 휴머니티스칼리지(휴마)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어떤 내용이며 결과는 어떠한가?

A. 총학생회 이재백 회장 : 휴마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는 전반적으로 이뤄졌다. 4년 주기로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절대평가를에만 몰두하지 않고 지난 3년간 학생들이 교양 과목을 수강하면서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면 좋겠는지 각 교과별로 항목을 나눠 자세하게 조사했다. 필수 교과와 배분 이수 등 각 영역에 맞는 평가 방식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필수 교과 57.5%, 배분 이수 47.3%, 자유이수 41.9%, AI/SW 45.9%의 비율로 학생들의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Q. 휴마 교수진과 행정실과의 소통은 어떻게?

A. 총학생회 이재백 회장 : 8월 28일 휴마 측과 면담을 완료했고 현재 내부에서 내년 개편을 앞두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고민 중이라고 입장을 전달받았다. 총학에서도 학교에 지난 개편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다. 학생들의 의견 및 자료가 모두 취합되면 총학생회 의견과 휴마 의견을 취합해 본부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Q. 교육과정 개편 TF팀 구성, 그들의 역할은?

A. 총학생회 이재백 회장 : 추후에는 총학생회와 휴마와 면담 이후 진행하려고 한다. 현재까지 TF팀은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를 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맡아 진행했다. 만족도 조사가 마무리된 현재 TF팀의 실질적인 업무는 종료됐고, 앞으로 진행 과정에 대한 논의 및 협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Q. 2024년에 예정된 교육과정 개편,

절대평가 도입의 가능성은?

A. 총학생회 이재백 회장 : 개편 이전에 절대평가 도입의 확정 여부를 아직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후마는 서울캠과 국제캠에 하나씩 있어 같이 움직여야 하지만, 현재 양 캠퍼스 간의 의견 차이로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취합하고 통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양캠 총학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양측 의견을 통일해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과정 또한 확실한 대담을 드리는 어렵지만, 개편 연도가 내년엔 예정돼 있기 때문에 후마 성적평가 방식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11월까지 본부에서 취합한 후, 확정은 12월쯤 될 것 같다.

### 수강신청 및 다전공 P/NP

Q. 전체적인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A. 총학생회 채희선 부회장 : 우선 수강신청 희망과목담기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이번 학기부터 시행됐다. 연장된 기간에 많은 교수님들이 강의 계획서를 마무리해, 학생들이 강의 계획서를 확인하고 시간표를 짤 수 있어 이번 기간 연장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강신청 기간 동안 PC와 모바일에서 수강 잔여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또한 진행 완료됐다. 수강 학점 철회 기간 연장은 이번 2학기부터 기존 2주 차에만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4주 차까지로 연장에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재직자 전형 학우들을 위한 수강신청 가능 시간 연장은 수업 연한 초과자 등록과, 교직원들의 정해진 퇴근 시간에 의한 수강 신청 지원 불가로 인해 이행될 수 없었다.

다전공 P/NP 도입은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방향성에 변화가 있었다. 초기에는 다전공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서 선거 공약 내에 '다전공 P/NP'를 내세웠다. 그러나 다전공은 학사를 하나 더 얻는 것이기에 본전공 학생들과 동일하게 진행돼야 하는 것을 알았고, 이를 대신해 총학생회는 계열별 교차 전공교과목 성적평가 선택제 즉 '다전공 P/NP'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본인의 단과대학이 포함되지 않은 타 계열의 전공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 성적평가 선택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도 이번 학기 일부 교과목에 한해 시범

**공약 1**  
**후마 교양 절대 평가**

“절대평가 도입의 확정 여부를 아직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양캠 총학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양측 의견을 통일해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총학생회 이재백 회장

**공약 3**  
**스마트캠퍼스 구축**

“이번 학기에는 스마트캠퍼스 1단계인 모바일 학생증이 이행될 예정이다. 단기적인 것이 아닌 향후에도 사용해야 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이용층들의 의견을 반영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개발하기를 바란다.”  
- 총학생회 채희선 부회장

서울캠 총학이 말하는 주요 공약들의 진행상황이다.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전공 공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에 대한 P/NP 성적평가 도입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 스마트캠퍼스 구축

Q. 스마트캠퍼스, 내부 논의 어디까지 진행됐나?

A. 총학생회 이재백 회장 : 현재 학무부총장 산하 기구로 스마트캠퍼스 구축 사업단이 신설됐다. 총학생회

측에서도 신설된 사업단과 미팅을 공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에 대한 P/NP 성적평가 도입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교내 서비스 현황 파악 및 분석, 교내 구성원 의견 청취, 관련 부서 및 외부 업체 미팅이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때 교내 구성원의 의견을 담기 위해서 사업단에서

뽑은 학생 자문단과 총학생회 추천 인원을 합쳐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을 예정이다.

포털 시스템 구축은 사업단이 각 부서에 스마트캠퍼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요청해 놓은 상태다. 각 부서별로 의견을 취합해 편리성에 초점을 맞춰 시스템 구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상권 제휴인 KHU-pay의 도입은 학교가 금융권과 연계해야 할 부분인 만큼 바로 승인을 받아

**공약 2**  
**수강신청 및 다전공 P/NP**

“다전공의 경우 본전공 학생들과 동일하게 성적평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초기에 내세웠던 '다전공 P/NP'가 아닌 '타전공 P/NP'로 이번 학기부터 일부 교과목에 한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 총학생회 채희선 부회장

**공약 4**  
**총장 공약 이행 점검**

“총장실에 업무 연락을 보내 지금까지 이행한 공약들의 진행과정 등의 내용을 전달받았다. 현재도 총장의 공약 이행 여부를 계속해서 감시 중이다.”  
- 총학생회 이재백 회장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는 진행이 어렵고 2, 3 단계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Q. 스마트캠퍼스 구축, 남은 과제는? A. 총학생회 채희선 부회장 : 스마트 캠퍼스 구축 사업단이 교내 부서에 개설된 것을 보면 학교에서 계속해서 담당해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보

인다. 스마트캠퍼스는 단기적인 것이 아닌 향후에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 만큼 이용층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용 시에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개발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총학에서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 놓을 예정이다. 이번 임기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것들은 차기 총학에도 인수인계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Q. 공약 이행 점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A. 총학생회 이재백 회장 : 총장실에 업무 연락을 보내 총장이 지금까지 이행한 공약들의 진행 과정과 아직 이행 중인 공약들은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공개하기 전에 학생의 시선과 학교의 입장이 어

는 것인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기본적인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총학의 입장에서 법인에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Q. 공약 이행 점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A. 총학생회 이재백 회장 : 총장실에 업무 연락을 보내 총장이 지금까지 이행한 공약들의 진행 과정과 아직 이행 중인 공약들은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공개하기 전에 학생의 시선과 학교의 입장이 어

는 것인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기본적인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총학의 입장에서 법인에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를 느꼈고, 총장실과 계속해서 소통하며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현재도 총장의 공약 이행 여부를 계속해서 감시하는 중이다.

Q. 얼마 남지 않은 총장 선출, 총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A. 총학생회 이재백 회장 : 법적으로 총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총학의 요청만으로 선출이 이뤄질 수 없다. 이는 총장 선출이 법인의 전적인 업무이기 때문인데, 학교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학생들의 의견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총장 선출이 온전히 법인의 결정만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최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난 8월 10일, 대령사에서 구성원 단체 대표들의 생각을 법인에게 전달하려는 공문을 만들었고, 이는 법인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후보자와 구성원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후보자의 충분한 검증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의 소통 방안 의무화를 요청했다. 이에 30일에 법인 회의를 진행해 총장 선출과 관련된 안이 나와 9월 말쯤에는 전체적인 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16대 선거 때 선거 운동과 토론회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번 선출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아직 법인에서 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이뤄질 것인지, 후보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기본적인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총학의 입장에서 법인에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A. 총학생회 채희선 부회장 : 앞으로는 임기 동안에도 공약 이행 및 공약 이외의 다양한 사업을 꾸리는 것에 열중하고자 한다. 일부 공약들은 학교 본부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하거나, 스마트캠퍼스와 같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진행해야 하는 공약들이 있는데 임기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매듭을 지어보고 싶다. 남은 임기 동안 공약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학교 본부 차원에도 적극적으로 요구와 협력을 요청할 것이다. 임기 초반보다 임기의 중후반을 달리고 있는 지금, 더 욕심이 생겼다. 단순히 공약을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시도해보지 않았거나 매번 불편함을 느꼈지만 고쳐지지 않았던 고질적인 문제에 다가서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 높은 경희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만족도'라고 생각한다.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즐긴 경희대는 자부심과 긍지와 함께 다시 경희로 돌아온다. 그렇기에 학생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와 즐거움을 주는 것은, 경희대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며 더 높은 경희대를 위한 발전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시점검찰 것이다. 그중 하나가 스마트 캠퍼스 구축 사업 진행이었고, 작더라도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이 있다면 이를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하나씩 바뀔 나날 것이다. 좀 더 다니기 편한, 더 나은 경희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 마지막 소감

Q. 앞으로의 계획은?

A. 총학생회 이재백 회장 : 우선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며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할 것이다. 그중 하나가 스마트 캠퍼스 구축 사업 진행이었고, 작더라도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이 있다면 이를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하나씩 바뀔 나날 것이다. 좀 더 다니기 편한, 더 나은 경희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학교가 어

떠한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하는지에 대해 계속 생각할 것 같다. 더 좋은 총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우리학교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경쟁력이 있을 수 있도록 학교 내의 미래인재센터나 교수학습 개발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다.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남은 4개월의 임기도 꾸준함으로 임해, 건강한 학생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임기를 시작하고 약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이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못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들도 있었다. 이렇게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활용해 마무리하고 싶다.

A. 총학생회 채희선 부회장 : 앞으로는 임기 동안에도 공약 이행 및 공약 이외의 다양한 사업을 꾸리는 것에 열중하고자 한다. 일부 공약들은 학교 본부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하거나, 스마트캠퍼스와 같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진행해야 하는 공약들이 있는데 임기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매듭을 지어보고 싶다. 남은 임기 동안 공약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학교 본부 차원에도 적극적으로 요구와 협력을 요청할 것이다. 임기 초반보다 임기의 중후반을 달리고 있는 지금, 더 욕심이 생겼다. 단순히 공약을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시도해보지 않았거나 매번 불편함을 느꼈지만 고쳐지지 않았던 고질적인 문제에 다가서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 높은 경희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만족도'라고 생각한다.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즐긴 경희대는 자부심과 긍지와 함께 다시 경희로 돌아온다. 그렇기에 학생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와 즐거움을 주는 것은, 경희대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며 더 높은 경희대를 위한 발전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시점검찰 것이다. 그중 하나가 스마트 캠퍼스 구축 사업 진행이었고, 작더라도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이 있다면 이를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하나씩 바뀔 나날 것이다. 좀 더 다니기 편한, 더 나은 경희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사진=대학주보DB)